



철강/비철금속 (Positive)

특수강봉강 반덤핑 예비판정, 2027년 특수강 ASP 상승 지속 전망

▶ Analyst 권지우 jiwoo.kwon@hanwha.com 3772-7689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특수강봉강에 25.08~27.9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수입의 90%가 중국산이고 이를 대신할 공급원이 없어, 국내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판재 반덤핑보다 직접적일 전망이다. 다만 판정 전 선제 수입 재고가 소진돼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반영은 2027년으로 판단된다.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산을 직접 겨냥

이번 예비판정은 국내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무역위원회는 9월 17일 중국산 봉강의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를 예비 긍정 판정하고, 25.08~27.96%(그 밖의 공급자 27.3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대상은 철근 형강과 스테인리스강을 제외한 탄소강·합금강 봉강으로, 자동차·건설중장비·배어랑·산업기계 부품 소재가 대부분 포함된다. 판재 사례에서 예비판정 후 잠정관세까지 약 2개월이 걸린 만큼 시행은 11월 중순 전후로 예상된다. 다만 판정을 앞두고 선제 수입이 크게 늘어, 효과가 숫자로 드러나는 시점은 재고가 소진되는 2027년 중으로 예상된다.

대체 공급원이 없어 조정은 가격에서 일어날 것

줄어드는 중국산을 대신할 공급원은 해외에도, 국내에도 넉넉하지 않다. 2025년 특수강봉강 수입의 90.6%가 중국산이었고,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의 수입은 6.7만 톤에 그쳤다. 후판에서는 잠정관세 후 1년간 중국산 수입이 33% 줄었지만, 제3국산 유입은 그 감소분의 14%를 메우는 데 그쳤다. 국내 최대 생산자인 세아베스틸의 2026년 상반기 가동률도 93.2%에 달해, 연 65만 톤 안팎 들어오던 중국산을 국산이 물량으로 흡수할 여지는 크지 않다. 8월 국산 유통가는 중국산보다 탄소강이 kg당 190원, 합금강이 410원 비쌌다. 25~28%의 관세가 붙으면 중국산의 가격 우위는 탄소강에서 사라지고 합금강에서도 크게 줄어든다. 각 제품중 저가 수입재가 만들던 국내 가격의 하단이 그만큼 위로 올라갈 전망이다.

선제 수입 재고가 소진되는 2027년부터 본격화

단기적으로는 판정을 앞둔 선제 수입이 오히려 국내 시장을 압박하는 구간이다. 8월 중국산 특수강봉강 수입은 11.6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 늘었고, 수요처가 관세 전 재고를 확보하면서 유통 시장의 신규 주문은 위축됐다. 판재 사례를 보면 중국산 열연 수입은 잠정관세 후 3개월 만에 87% 줄었지만, 국산 유통가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던 열연은 5개월, 후판은 11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를 대입하면 국산 가격 반영은 재고가 소진되는 2027년 1분기를 지나야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봉강은 비자동차용이 월 단위로 가격을 정해 반기 협상에 묶인 조선용 후판보다 반영이 빠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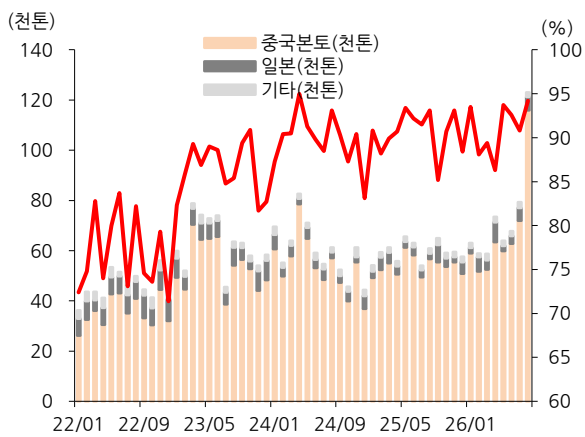
변수는 중국산 부품으로의 수요 이탈과 중국 제강사의 가격 대응

효과의 크기를 좌우할 변수는 소재 대신 완성 부품을 들여오는 흐름과 중국 제강사의 가격 대응이다. 배어랑·기어·변속기 등 특수강봉강을 소재로 쓰는 부품의 중국산 수입은 2025년 20.7만 톤으로 최근 3년간 18% 늘었고, 변속기의 중국산 점유율은 2023년 33%에서 올해 55%로 올랐다. 소재 가격만 오르고 부품은 그대로면 부품을 통째로 들여올 유인이 커진다. 소재 관세가 이 전환을 앞당기면 국내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경로가 생긴다. 소재 단계 우회는 아직 작지만 조짐은 있다. 합금강 반제품 수입은 올해 봉강 수입의 1.7% 수준인데, 8월에만 전월의 11배로 늘었다.

2027년부터 실적 반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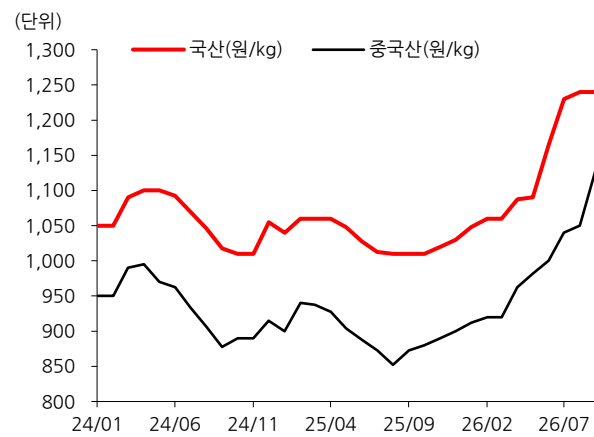
국내 업체 중 수혜는 탄소·합금강 특수강봉강의 최대 생산자인 세아베스틸에 집중될 전망이다. 저가 경쟁 품목의 단가가 올라가고, 설비가 충분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마진이 좋은 제품 위주의 선택적 수주가 가능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3분기 선제 수입에 따른 판매 부담이 예상되고, 4분기도 관세 적용 기간이 1.5개월 안팎에 그쳐 실적 기여는 제한적일 것이다. 반면 중기적으로는 2027년 비자동차용 월별 판가와 자동차용 분기 가격 협상을 거치며 본업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10월 국산 출하가 인상 재개 여부, 11월 경제정책위원회의 잠정관세 고시(시행일과 용도별 예외 여부), 12월 공청회의 가격약속 제의 여부, 2027년 2월 경 최종판정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1] 월별 국가별 특수강봉강 수입과 중국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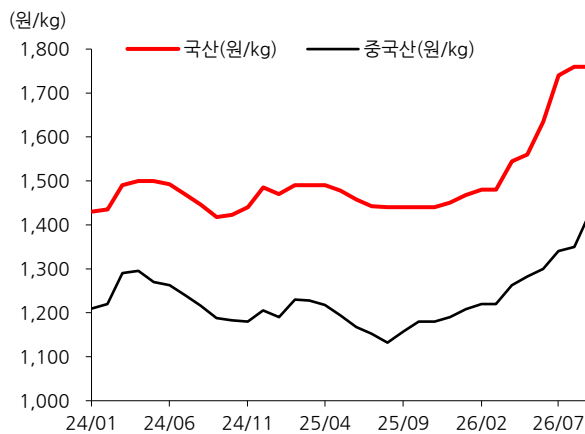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협회, 스틸데일리, 무역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탄소강 환봉 유통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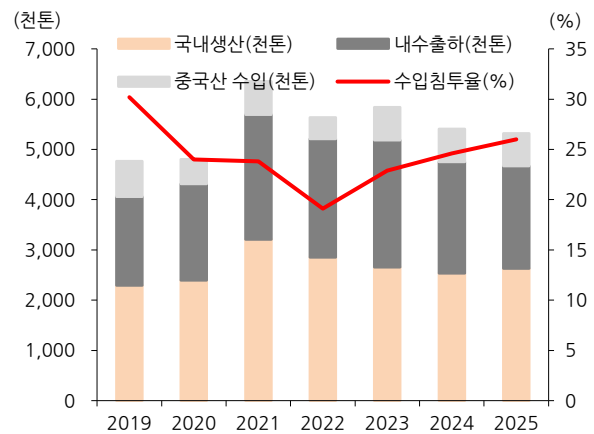
주: 스틸데일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합금강 환봉 유통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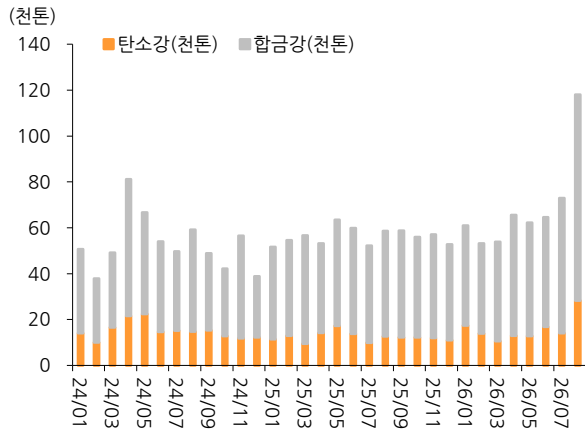
자료: 스틸데일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연간 특수강봉강 수급과 수입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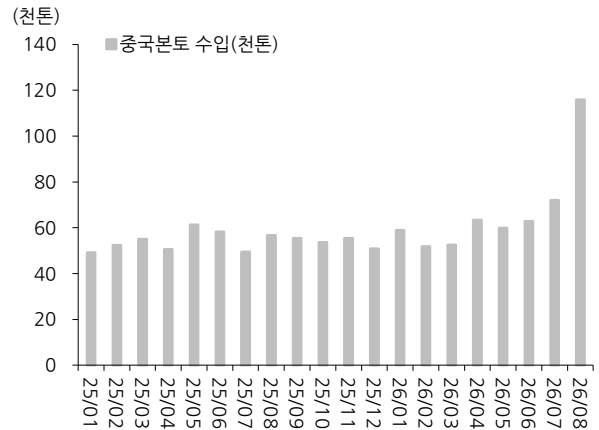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산 조사대상 탄소강·합금강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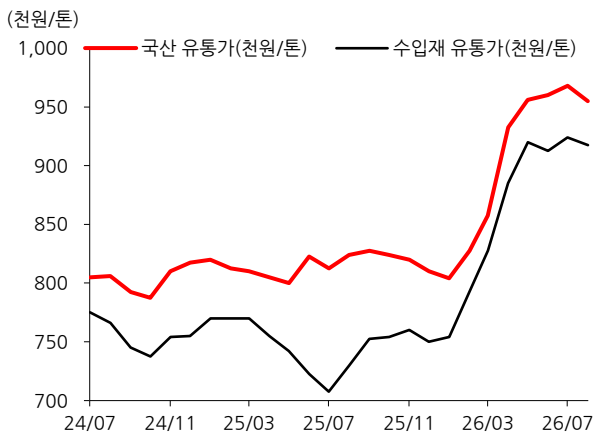
자료:한국철강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국 월별 특수강봉강 수입 추이



주: 한국철강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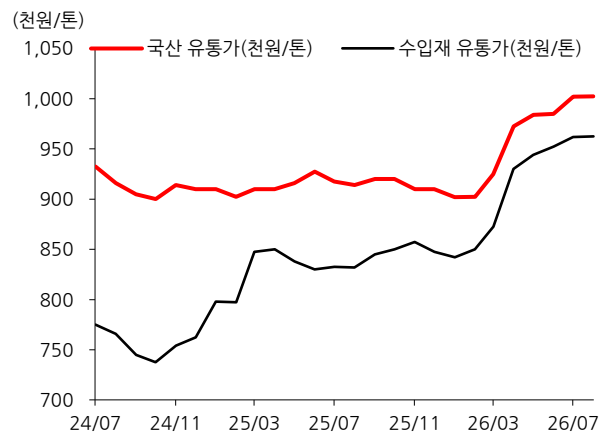
[그림7] 국내 열연 유통가격 추이



주: 예비판정 2025-07-24, 잠정관세 2025-09-23, 최종판정 2026-02-23, 본조치 2026-06-23

자료: 스틸데일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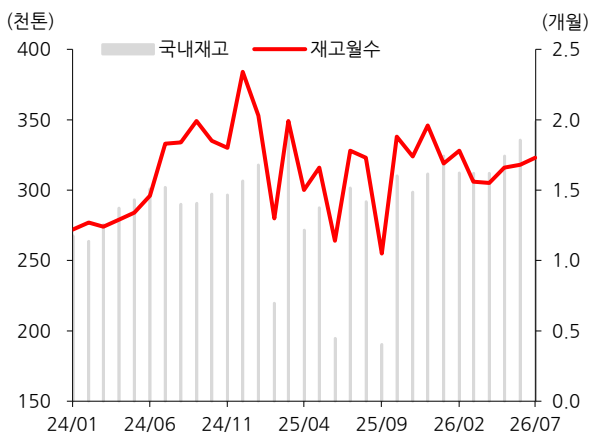
[그림8] 국내 후판 유통가격 추이



주: 예비판정 2025-02-20, 잠정관세 2025-04-24, 최종판정 2025-08-28, 본조치 2025-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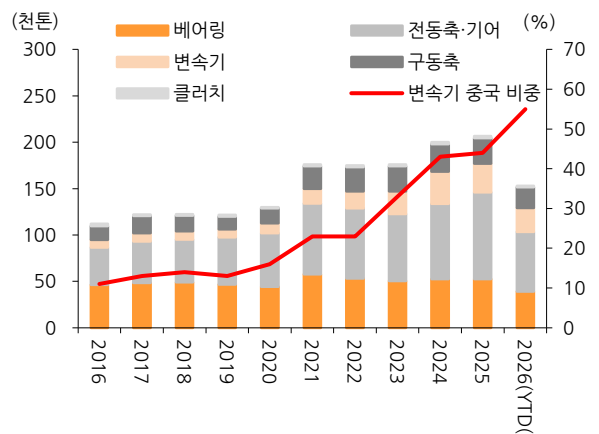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 특수강봉강 재고와 재고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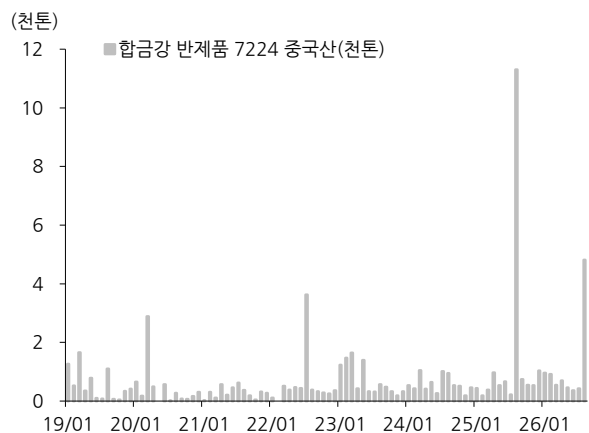
자료:한국철강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중국산 봉강 관련 부품 수입과 변속기 중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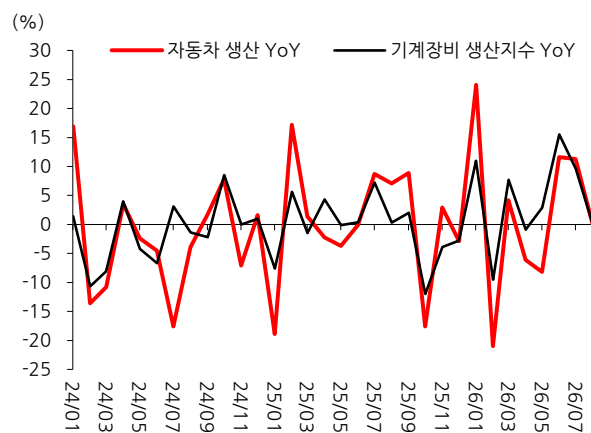
주: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합금강 반제품(HS 7224) 중국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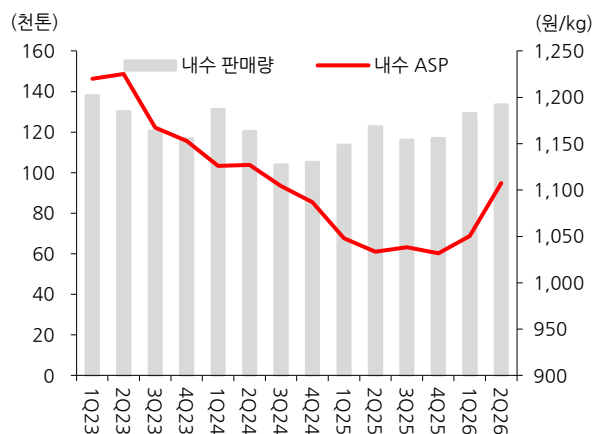
자료:한국철강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특수강 전방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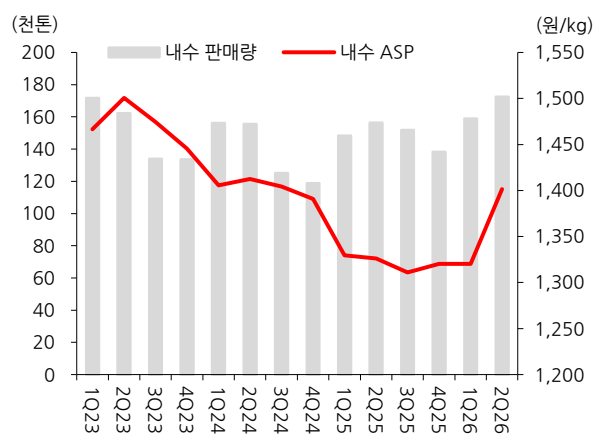
주: KAMA, KO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세아베스틸 내수 탄소강 판매량과 ASP



자료:세아베스틸지주,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세아베스틸 내수 합금강 판매량과 ASP



주: 세아베스틸지주,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9월 21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권자우)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6.3%	3.7%	0.0%	100.0%